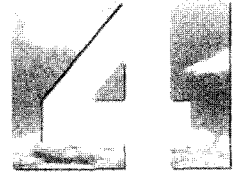


국내 배합사료

시장동향 및 전망



I. 서론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을 오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조류독감 등으로 닭고기 등 양계산물의 극심한 소비부진 속에 연이은 양계업계의 도산 및 폐업이 속출했는가 하면,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 금지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값은 사상 유례없이 폭락하고, 반면 돼지고기값은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하는 등 축종간 희비가 교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 6월 사료값 인상 후 같은 해 12월, 2004년 3월 및 지난 6월에도 또 다시 사료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약 1년 만에 무려 4차례나 사료가격이 인상되는 진기록과 더불어 돼지의 경우 출하 마리당 약 4만원 이상, 비육우의 경우 마리당 약 30만원 이상의 추가 사료비가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수차례의 사료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업계는 계속되는 원가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등 모든 축산업계가 총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였으나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2004년 말부터는 지금보다는 다소 나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박인수 마케팅 이사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II. 축종별 향후 시장전망

1. 낙농 시장동향 및 전망

낙농업의 경우 최근 약 2년 여에 걸친 분유 채화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12천호 이상이던 낙농 사양가는 현재 약 10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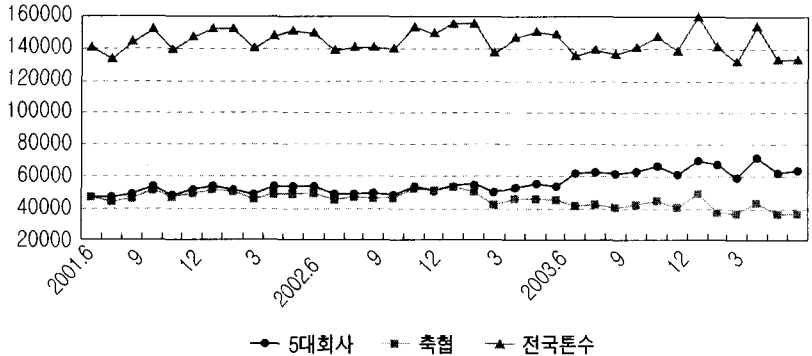
여 호에 불과하며, 사육두수 또한 2004년 6월 현재 약 512천두에 불과해 2002년 3월의 544천두와 비교하면 약 3만두 이상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배합사료 시장 또한 2002년 월평균 147천톤에서 2003년 월평균 141천톤으로 약 4.1% 감소하였다. 2004년도 배합사료 시장은 계속 감소하여 2004년 5월까지 월평균 약 139천톤의 생산, 판매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사육두수의 정체 및 배합사료 의존도 감소로 배합사료 판매량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격, 고품질을 추구하면서 현장 서비스 활동을 하는 주요 회사들의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축협사료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 그동안 장기간 분유 체화 문제로 인한 낙농시장의 침체 및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양가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낙농산업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경우 배합사료 시장도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생산성 지향 그룹(일명 품질 중시형 사양가)과 최저 가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희망하는 원가 절감 그룹(일명 OEM 사양가)이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낙농용 배합사료 판매량



* 5대회사: 푸리나/ CJ/ 제일사료/ 선진/ 우성

2. 비육우 시장동향 및 전망

비육우 시장은 지난 해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여파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최근 산지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아직도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생산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IMF 이후 2000년까지 극심한 구조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2001년 이후 우리나라 비육우 시장은 높은 출하시세와 더불어

국내 배합사료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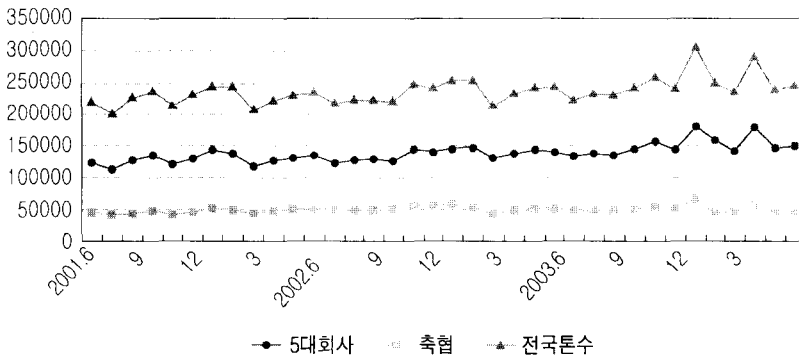
어 사육두수 또한 최근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비교적 좋은 시장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육두수 측면에서는 2003년 3월 131만두의 최저 사육두수를 기록한 후 계속 꾸준히 사육두수가 늘어 2004년 3월 150만두, 6월에는 160만두를 돌파하여 이제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배합사료 시장도 2001년 월간 200천톤 초반이던 시장규모가 2002년 연간 2,753천톤으로, 2003년에는 연간 2,926천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도 5월까지 월평균 252천톤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3,000천톤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의 우수 브랜드 장려 정책에 발 맞추어 많은 사료 회사들이 쇠고기 브랜딩 사업을 위한 고급육 생산 사료와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는 기능성 브랜드 사료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비육우용 배합사료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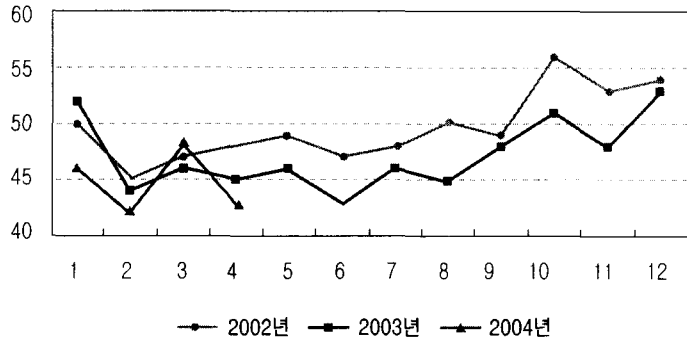


3. 양돈 시장동향 및 전망

양돈은 지난 1년간 가장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겪은 축종으로 전체 사육두수는 현재 900만두를 약간 상회하나 유행성 설사병(PED)과 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PMWS) 등 질병의 영향으로 출하두수는 2004년 1월~4월까지 496만두를 도축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3.8%가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배합사료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였다.

사육두수의 감소와 더불어 소에서의 광우병 파동, 닭에서의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표 3> 양돈용 배합사료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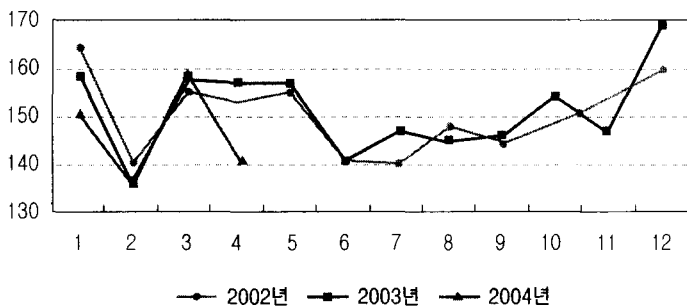
돼지 산지시세는 연초부터 큰 폭으로 올라 최근에는 지육 Kg당 4,000원을 넘는 초호황 시세를 기록중이나 앞으로 높은 시세로 인해 수입 돼지고기의 증가와 PED, PMWS 등 질병의 여파로 인해 사육두수는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돈 사료시장은 최근 들어 양극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는 낮은 가격의 OEM 사료시장과 생산성 향상과 수준 높은 농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고품질 사료시장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산란계 시장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최근 약 5천만수 규모의 비교적 안정적인 사육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조류독감 등 질병의 여파로 인한 집단도태, 폭설로 인한 폐사 등이 겹치면서 사육수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 3월에는 지난해 대비 4.6% 감소한 4,650만수

<표 4> 산란계용 배합사료 판매량



국내 배합사료 시장동향 및 전망

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3월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23%나 감소하는 등 앞으로 사육수수도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계란값이 상승하면서 노계의 도태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4년초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나 지난 4월부터는 본격적인 노계 도태가 진행되면서 산란용 배합사료 톤수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란계 시장은 줄어든 사육수수로 인해 비교적 좋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최근 일부 유통 업체들이 기능성 계란 생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 육계 시장동향 및 전망

조류독감의 직격탄을 맞은 육계의 경우 2004년 상반기 동안 도계수수 감소 및 닭고기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왔다. 육용계용 배합사료 시장은 사육수수의 감소로 인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이 208천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9천톤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올해 연말부터는 다시 이전의 사육수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따라서 육계시세 또한 다소 약세가 예상된다.

Ⅲ. 결론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배합사료 시장은 극심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려 4차례의 가격인상을 단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미국의 광우병 발생, 한우에서의 부루셀라 발병 등 각종 전염병의 극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4년 연말부터는 다시 사료 원료 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인 축산물 시세도 전망되어 2005년 축산 및 사료 시장은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시장상황이 전망된다.

그러나 상존하는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와 수입 축산물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 생산자 단체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속에서 배합사료 업계가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부단한 구조조정 노력, 품질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웰빙 시대에 맞는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㉞